



『세계경제지평』을 내면서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 추세의 가속으로 급변하는 국제여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넘치는 정보의 물결 속에서 매일 매일의 의사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국제경쟁에 살아 남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정보만을 적시에 확보 활용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지평”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나아가 정부와 기업의 일상업무와 장기전략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수시로 회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활용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1994년 1월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사공 일

유목적 세계(Nomadic World)의 도전

13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동안, 세계 중심지의 이동과 기술혁신으로 8개의 시장형태가 시기별로 계승되어 왔다. 1930년대 부터 뉴욕을 중심으로 그 여덟번째 시장형태가 유지되어 왔으며, 앞으로 2000년대에는 아홉번째의 시장형태가 새로이 탄생할 것이다.

이와같은 시장형태는 하나의 시장질서 혹은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그리고 항상 이러한 국제경제질서를 주도하는 지역이 있어 왔다. 이 주도지역은 통화와 자본, 풍부한 에너지자원, 중요한 통신기술, 경제성장의 기초가 되는 소비재, 그리고 다소의 이념적 내지 문화적 야심 등을 가지고 세계를 주도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시장형태의 출현과 기술의 발달은 세계경제를 주도하던 기존의 한

지역이 쇠퇴하고, 다른 지역이 새로운 경제중심지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는 이와같이 경제중심지가 변화하는 과도기를 보통 “위기” (crisis)라고 부른다. 이러한 과도기는 상대적으로 짧은 안정기간에 비하여 장기간 계속되기 때문에, 위기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정상적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불황은 막강했던 미국에 대한 도전과 함께 197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새로운 힘의 중심과 성장과 변영의 새 틀이 나타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는 산업생산으로 부터 얻어지는 이윤보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된 부(富)중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할수록 산업생산에 투입되는 비중이 감소함으로써, 산업의 효율성은 점점 떨어지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세계경제질서는 대서양을 중심으로 이룩되었는데, 지난 20여년간 이 질서는 약화되어 왔다. 그 주된 이유로는 보건, 교육, 국방 및 치안유지에 대한 공공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의료, 교육 및 안보 등의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고, 또한 대량실업을 야기함이 없이 이러한 공공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 서비스비용이 감소할 때, 우리는 다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서비스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보장혜택을 줄이던가 아니면 새로운 에너지와 통신수단의 발달로 시장에서 대량으로 자유롭게 팔릴 수 있는 생산물이 개발되어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교육 및 의료서비스의 최소한 일부라도 개인이 직접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본인이 “유목적 물품 nomadic objects” (유목민이 지니고 다닌 것과 같은 간편한 이동식 휴대상품, fax, 전화, 비디오게임기 등과 같은 것)이라고 칭한 상품의 출현을 목격하고 있다. 그것들은 이미 여가활동의 개인주의화를 촉진시키고, 또한 그러한 유목적 물품은 교육, 진단, 예방, 그리고 치료의 분야에서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와같이 유목적 물품의 출현과 함께 개인이 스스로 자기 책임하에서 부담하는 오락, 교육 및 의료서비스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정보전달매체의 기술적 변화는 더욱더 촉진될 것이다. 텔레비전은 단순히 일반적으로 오락만을 제공하는 기구보다는 곧 장거리 학습과 의료를 위한 수단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이래 국가가 수행해오던 기능 즉 오락, 의료, 교육, 통제,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처벌까지도 점차적으로 시장이 떠맡을 것이다.

미래의 사람 다시말하면 자기통제와 자기정보 그리고 자기지배로 특징지워지는 유목적물품의 소비자는 각각 하나의 실체로서 동시에 환자와 치료의사, 선생과 학생, 범법자와 경찰, 관객과 배우, 자급자족자, 자기 죄에 대한 집행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가 이러한 새로운 아홉번째 시장형태의 중심지가 될 것인가? 아시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아시아는 경제적 여건과 문화적 요인 양측면에서 이러한 변화에 가장 잘 준비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은 상품의 소형화, 자기통제, 다양성 등의 특징을 오랫동안 간직해 왔다. 오늘날 거의 모든 유목적 물품이 처음 이 지역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시장규모, 기업가정신,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서비스지출 규모 등도 유리한 요소인 것이다.

미국은 엄청난 문화적 기억상실증과 장기적 안목이 없는 하루살이 같은 삶의 선호 때문에, 어느 변화에도 항상 잘 적응한다. 따라서 미국은 어떠한 변화도 가장 잘 수용할 수 있는 나라이다. 미국은 타고난 유목적 사회이며 대중매체와 소프트웨어의 풍요로운 나라로 공동체 보다는 개인에 우선권을 그리고 기쁨을 주기보다는 죄를 다스리는데 우선권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매일 전자노트북, 인터랙티브 텔레비전과 같이 미래의 길을 열어주는 기기가 더욱더 효율화되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은 이웃나라와 경제연합을 통해 다시 그의 시장규모를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막대한 공공서비스지출로 재정적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생산성저하로 날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미국이 다시 한번 중심지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하려면 미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거국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럽은 공공서비스와 민주주의, 동일성과 영토,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를 함께하는 전통 때문에 유럽 스스로 창조해낸 정부, 국가, 시민, 제도, 병원, 그리고 학교의 개념이 사라지는 것에 가장 반대하는 지역인 것이다. 유럽은 이러한 개념을 보호하려는 헛된 노력 때문에 아마 계속적인 실업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아홉번째의 시장형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

유럽이 새로운 국제질서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럽의 많은 자원과 7억 이라는 인구를 함께할 수 있는 공동시장을 형성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유럽공동시장의 근본이된 크리스천국가들의 모임성격이 아니라 터키, 러시아, 알바니아, 그리고 아르메니아까지를 포함한 국경없는 유목적 시대를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이룩될 때 유럽은 어느 지역보다도 인간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유리한 요소를 구비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맡아왔던 의료 및 교육을 점차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기고, 정부는 단지 시장률(market rule)을 정하는 기능만 수행해야 한다. 다시말하면, 각 정부는 그들의 기술과 그리고 직업을 소개하고 준비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그밖의 나머지는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기능이 소개되고 또한 새로운 기술이 발달되면서 기존의 의사, 선생, 경찰, 그리고 군인의 역할이 소멸하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현재 근로소득계층은 아니지만 미래의 유목적물품에 대한 중요한 고객이 될 젊은이와 노인을 위한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20세기초에 최저임금제도를 통하여 그리고 뉴우딜정책을 통한 가족수당으로 그당시의 새로운 상품인 자동차 및 가정용품의 구입을 촉진시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정착생활양식보다는 문화적으로 유목적 생활에 더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유목적 세계 속에서 한국이 해야 할 일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화합이 이룩되고 있는 국제 포럼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CSCE, OECD, 그리고 EBRD 등에 참가하는 것이다.

한국은 대학이나 실험실 또는 산업계가 미래의 세계적 주요 필수품이 될 유목적 물품의 생산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기호와 욕구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노력해야 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 특히 동구 여러나라와 아프리카제국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그동안 한국이 쌓아온 전문적 지식 즉 금융, 산업 및 기술면에서 축적된 지식은 앞으로 이들 두지역 경제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그 지역은 한국의 전문가와 기업가들을 크게 환영할 것이며, 그 곳은 한국의 중요한 미래시장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한국은 유럽과 아시아의 교두보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로써 유럽시장에의 진출과 유럽에 대한 자국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유럽공동체와 다각적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 지역의 중요한 나라로써, 다음과 같이 미래에 인류가 걸머져야 할 다섯가지 주요 과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

- 인구 : 앞으로 이 세계는 150억이라는 인구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
- 마약 : 이것만이 유일한 자원인 많은 나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나?
- 무기 : 어떻게 핵무기와 화학무기의 확산위협에 대처할 것인가?
- 유전공학 : 과학의 발달로 야기하게 된 유전공학의 비윤리적 한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 빈곤 : 가장 가난한 20억 인구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 글은 1993년 11월 4일 본 연구원 초청으로 내한한 전 EBRD 총재이며, 해안을 가진 사상가 저술가로 잘 알려지고 있는 자크 아탈리박사의 강연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업무에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계 경 제 연 구 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

(서울 무역센터 우체국 사서함 112)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